

S#5 실내. 큰이모네 집. 아침.

주영은 아직 잠에 들어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나물을 손질하는 큰이모와 윤아.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 손질을 한다.

식탁 한 켠에는 테이블 꽃이 담긴 꽃병이 놓여져 있다.  
손질하다 말고 그 꽃병을 바라보는 큰이모.

큰이모

“너네 엄마 참, 저런 거 잘했었는데.”

윤아

“뭐가요?”

큰이모

너 낳기 전엔 꽃꽂이하면서 선생님 소리 듣고 그랬어.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던지.  
엄마 옛날 사진 보여줄까?

윤아

(잔뜩 궁금하다는 듯) 네.

큰이모, 식탁에서 일어나 옛날 사진을 찾는다.

큰이모

(사진을 집어 들곤) 여기 있네.

옛날 사진 속에 화려한 꽃을 들고 머리집게로 반 묶음머리를 한 긴 머리의 주영. 활짝 웃고 있다.

윤아

이게 엄마예요?

윤아, 사진 속의 엄마의 모습이 신기하다.  
지금의 엄마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윤아

우와!

큰이모

그래, 너네 엄마 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만 10명이 넘고 그랬다니까.

윤아

진짜요?

큰이모

새벽까지 쉬지도 않고 맨날 부케 만들고 그랬어.

손이 부족해서 나까지 불렀다니까.

(자랑스럽다는 듯이) 전시도 하고. 작가님 소리도 듣고. 다들 잘한다 했었어.

윤아

그럼 왜 그만 둔거예요?

큰이모,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본다.

큰이모

여자들이야, 애 낳고 나면 아무래도 일하기 힘들지.

그리고 IMF 이후로는 더 그랬지.

뭐 첫째까지는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한다지만...

윤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본다.